

‘주민 참여’, ‘고령 친화’
더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2018.8.16.

국토교통부가 2018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의 18개 대상 사업을 발표하였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하드웨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운영하던 '단일 시·군 일반 사업', '복수 시·군 연계 사업'에 더해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과 '고령친화적 공간정비 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을 통해서는 다양한 지역 주체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고령친화적 공간정비 사업은 지역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다.

지역 거버넌스형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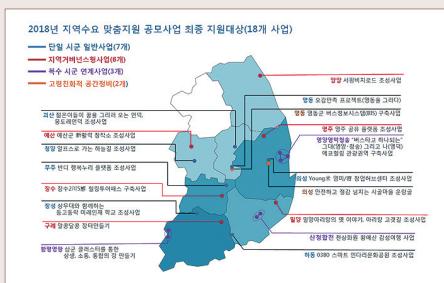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알콩달콩 장터 만들기

강원도 양양군의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은 지역 내 서핑협회와 주민연합회 등이 참여하여 관광객을 위한 서핑 테마거리, 볼파크, 죽도정 둘레길 등을 조성하고 서핑 축제와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라남도 구례군의 '알콩달콩 장터 만들기 사업'은 5일장 상인회, 귀농귀촌인 협의체, 야생화타운만들기 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한다. 귀농귀촌인 벼룩시장(플리마켓)과 전통 구례5일장을 연계하여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달콩 장터, 예비창업준, 야생화쉼터 및 미니광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고령친화적 공간정비 사업

안전하고 정감 넘치는 시골마을 유탄골

경상북도 의성군은 고령 인구 비율이 37.9%, 전국 2위 수준으로 매우 높은 지역이다. ‘안전하고 정감 넘치는 시골마을 운람골 사업’을 통해 고령자들이 여가·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야외 쉼터가 조성된다.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마을 진입로를 정비하여, 지역의 고령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18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대상지

자료: 국토교통부(2018),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18건 선정", 8월 16일자 보도자료

* 이구벼하율 소득수준 둘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낙으 70개 시·군